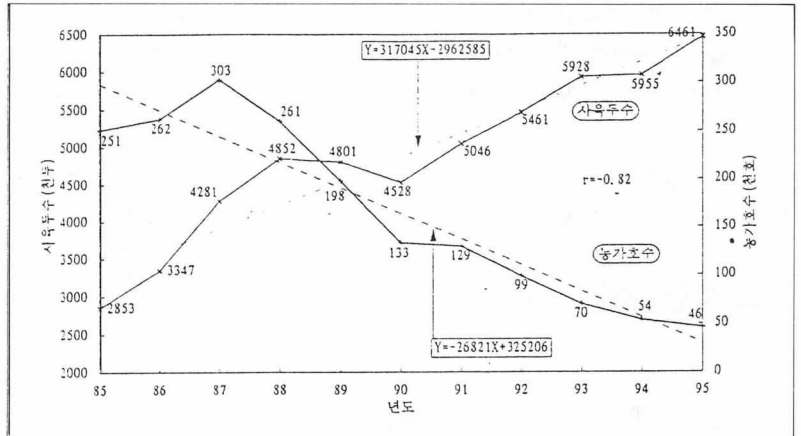


수입개방에 따른 한국 돈육시장의 변화

정영철 소장
(정 P&C 연구소)

본고는 지난 4월 10일 덴마크 돈육생산 및 도축업조합에서 주최한 「돈육세미나」에서 정영철 소장이 발표한 「수입개방에 따른 한국돈육시장의 변화」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편집자주)

한국의 돈육시장은 '97년 7월의 완전개방을 앞두고 구조적으로 커다란 재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구조적 재편성은 생산에서부터 도축, 가공, 소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과거와 현재의 생산 및 소비 형태를 조사하고 개방 이후의 돈육수급 및 국내 돈가변화를 추정하고자 한다.



〈그림1〉 양돈 사육두수와 농가수 변화

1. 돈육 국내 생산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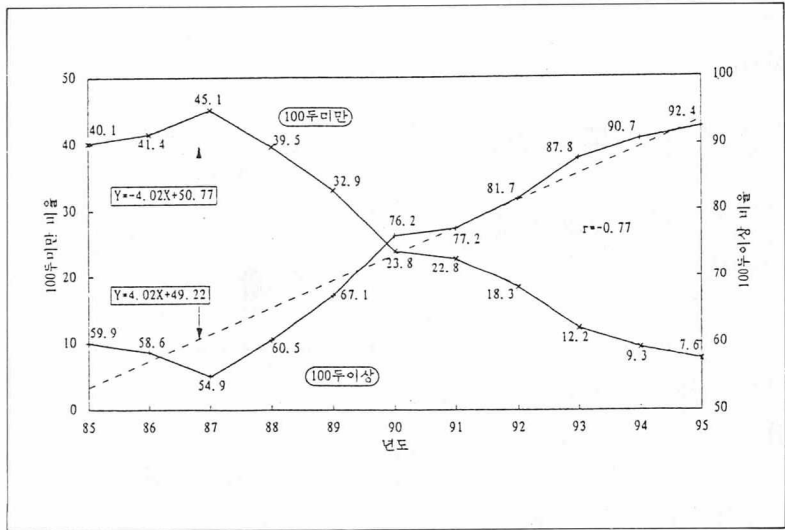
(1) 양돈 사육두수와 농가수 변화

한국의 양돈 사육규모는 국민경제가 성장하듯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사육규모가 매년 8.7%가 늘어났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매년 4.6%씩 늘어나고 있다. 또한 지난 10

여년간 사육규모가 2배가 넘었으며 매년 317천두가 늘어났다. 반면에 사육농가호수는 급격히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십년 전 20%이하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감소율이 낮아지기는 했으나 지난 10여년간 매년 사육농가호수가 평균 약 27,000호씩 줄어들어 왔다. 따라서 한국의 양돈 농장은 점차 규모가 커져서 1호당 평균 140두를 사육하고 있다.〈그림1〉

(2) 사육 규모별 사육 두수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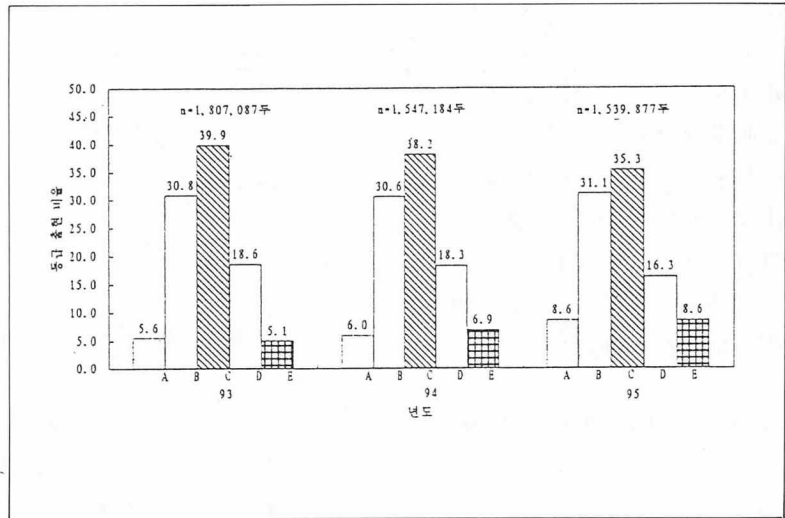
소규모 농장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고 농장 당 사육규모가 늘어가고 있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통계자료는 농장사육규모 100두 이하의 농가가 차지하는 전체 사육두수 중의 비율은 매년 약 4%씩 줄어들고 있으며, 반면 사육규모 반대로 매년 약 4%씩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은 100두 이상 농가가 차지하는 사육두수의 비율은 전체 두수의 92.4%를 차지하고 있다.<그림2>



<그림2> 사육규모별 사육두수 비율 변화(매년 12월두수)

(3) 도매시장의 지육 등급 변화

'93년 서울 도매시장에 공식적으로 지육도체 등급제가 도입된 이후 등급별 비율을 보면 A등급과 B등급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C,D등급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E등급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 현상은 전체적으로 지육의 품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품질이 나쁜 비율도 늘어나고 있어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림3>



<그림3> 도매시장의 지육등급 변화

(4) 돈육의 품질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육질을 검사하기 위한 대규모 시험은 한 적은 없으나 최근 비육돈 160두에 대한 육질검사 결과를 보면 PSE(백색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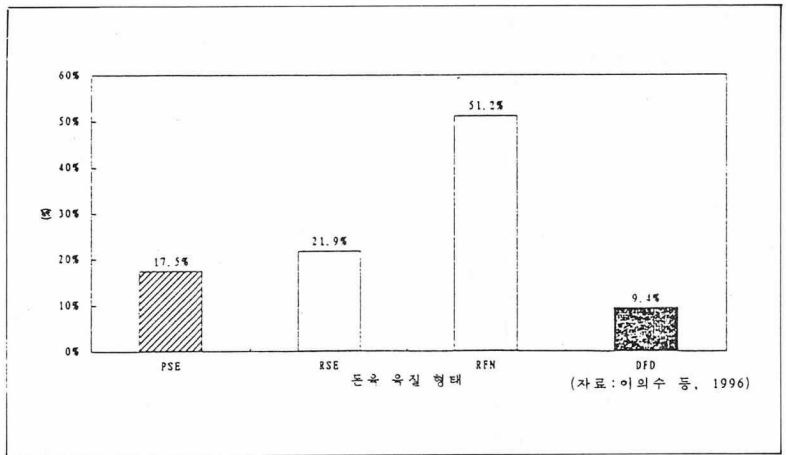
서 물렁물렁하고 수분 함량이 높은 고기)돈육이 17.5%, DFD(과도히 붉고 단단하고 수분이 없는)돈육이 9.4%로서 미국에서 1만여두의 비육돈을 조사하여 나온 PSE돈육 16%, DFD돈육 10%

수준과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그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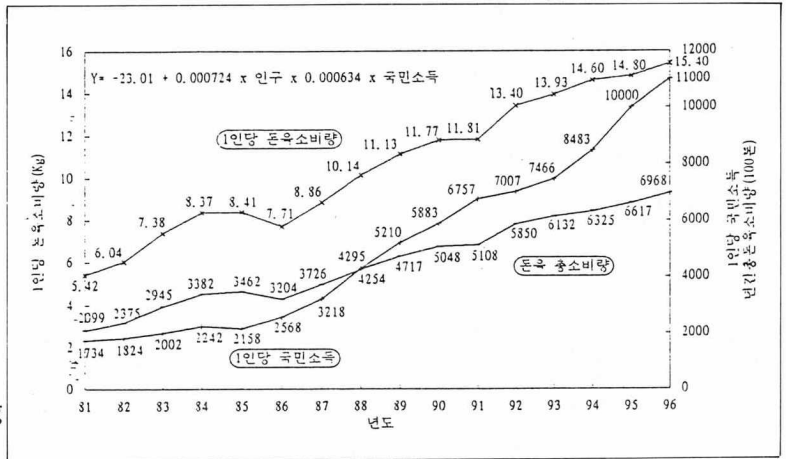
2. 수요와 돈육 가격

(1) 국민소득과 돈육 소비량

다른 선진국의 예를 보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국민소득1인당 8천 달러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돈육의 수요가 수그러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민소득이 1만 달러가 되어서도 돈육의 수요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특이한 국가라고 생각된다. 지난 20년간의 1인당 돈육 소비량을 통계로 분석하고, 90년대에 와서 추세를 보면 연간 인구증가율 0.9%로 인하여 287g, 연간 국민소득 1천 달러 증가로 634g 늘어나서 연간 1인당 921g 씩 더 돈육을 소비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5>



<그림4> 비육돈 육질검사 결과(160두)



<그림5> 국민소득 증가와 돈육소비량 증가 변화

(2) 계절별 출하두수와 가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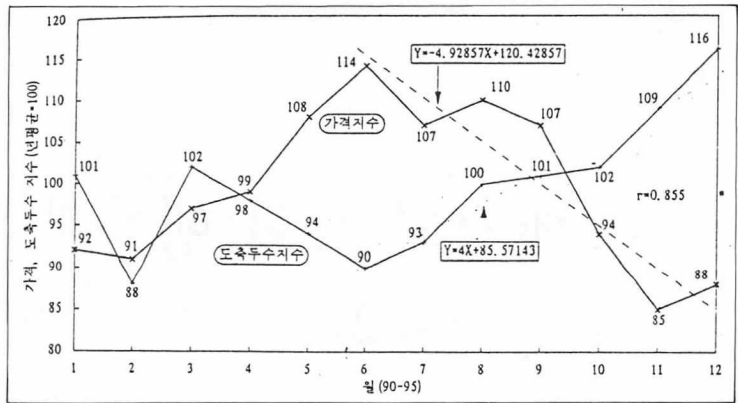
연중 계절별 또는 월별 출하두수와 가격의 변화는 크게 서로 부(負)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상관계수 = -0.85) 특히 매년 하반기에 매월 4%의 출하두수가 늘어나면 가격은 4.92%씩 내려가는 것이다. 실제 가격으로 보면 1개월간 출하두수가 31,046두 늘어나면 지육 월평균 가격이 kg당 115원씩 내려가는 것이다. 좀더 간단히 설명하면 1만두 출하두수가 늘어날 때마다 37원씩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다. 1년중 월별 가격 변

동추세를 보면 10월부터 3월까지의 겨울에 돈가가 하락하고 4월부터 8월까지 돈가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형태의 주요한 원인은 여름에 더위로 모돈의 번식성이 크게 나빠지기 때문이다.<그림6>

(3) 연도별 생돈, 지육 가격 변화

최근 5년간의 생돈과 지육가격의 변화를 보면 생돈과 지육가격은 연동하면서 90년~91년까지 가격이 상당히 높았으나 사육두수가 늘어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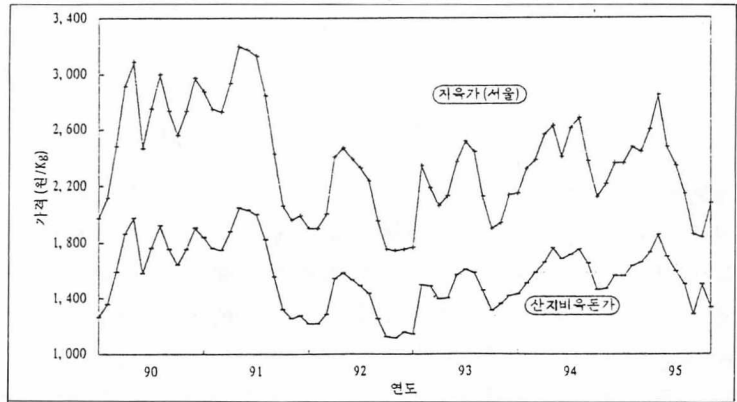
91년 하반기부터 돈가가 낮아져서 95년 상반기까지 진폭은 있으나 서서히 돈가가 하락하여 왔다. 역시 중요한 특징은 매년 10월 이후 다음해 초까지는 돈가가 좋지 못하고 92년부터는 돈가의 상승과 하락 진폭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96년 초부터는 다시 상승기로 진입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그림7>



<그림6> 계절별 공급두수와 가격지수 변화(1990~1995년 평균)

(4) 부분육 도매 가격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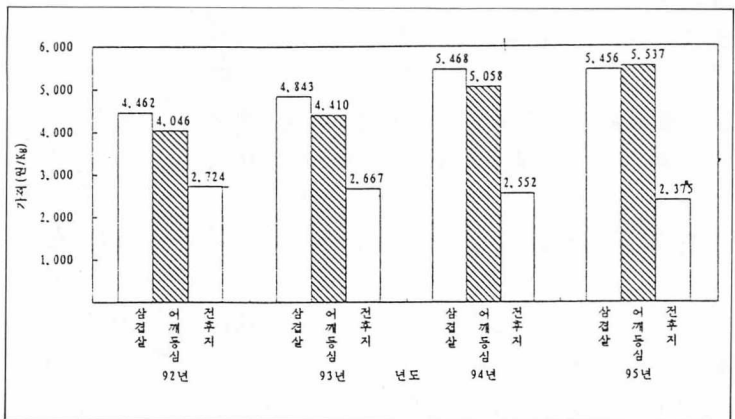
삼겹살과 어깨등심의 가격은 매년 조금씩 상승하지만 전지와 후지의 가격은 반대로 절대 가격 자체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그림8>



<그림7> 연도별 산지비육돈 가격과 지육가격 변화

(5) 지육가격과 부분육 비율 변화

지육가격을 기준으로 삼겹살, 어깨등심, 전후지 부분육의 비율을 보면 해가 갈수록 소비자가 선호하는 삼겹살과 어깨등심 부분육은 그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반대로 비선호 부위인 전후지 부분육은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후지 부분육 가격은 95년 말부터 지육가격



<그림8> 부분육 도매가격 변화

보다 낮아져서 그 비율이 지육가격의 0.9배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이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되리라고 생각된다. 또 한가지 특이한 사실은 어깨등

심부위의 가격이 삼겹살보다 높아지고 있어서 소비자가 삼겹살과 함께 어깨등심도 많이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호 계속>